

나고야성의 내력 BACK STORY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9년에 도요토미 진영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나고야성을 후성 하고, 도시 전체를 기요스에서 새로운 성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바둑판 구조의 거리가 현재의 나고야 모습의 원형이 되었고, 마을 이름은 물론 다리 이름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610년 나고야성 축성에 즈음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토 기요마사 및 후쿠시마 마사노리 등 서일본 다이묘(지방양주) 20 가문에 후신(토목공사)의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고기부신이라고 합니다. 천수와 궁전 사쿠지(건축공사)은 고보리 엔슈와 나카이 마사키요 등이 그 명을 받아 1615년에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오와리번 초대 번주로서 이에야스의 9남 요시나오가 입성하였고, 그 이후 나고야성은 고산케(도쿠가와와 3대 가문)의 필두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의 거성으로서 번영했습니다.

현재의 천수각 CURRENT MAIN CASTLE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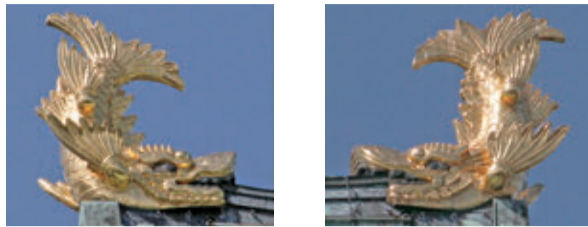


나고야성은 1930년 성곽 건축에서는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1945년의 나고야 공습으로 혼마루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고야의 상징인 천수각의 재건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1959년 마침내 천수각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천수각의 외관은 실측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재현되었고, 내부는 소실을 모면한 혼마루어전 장벽화(중요문화재) 및 무구(武具) 등을 전시하여 나고야성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였습니다. 현재 낮은 내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천수각은 폐관 중입니다.

긴샤치 KINSHACHI

샤치(만든 머리는 호랑이 몸은 물고기인 동물)는 상상의 동물로서 물을 부른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방지를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고야성의 긴샤치에는 에도시대 초기의 대형 금화1,940매분의 쓰이그,도쿠가와 가문의 권력·재력크기를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긴샤치

구분	암컷(남쪽)	수컷(북쪽)
높이	2.579m	2.621m
중량	1,215kg	1,272kg
금판의 종류	18K	18K
금판의 두께	0.15mm	0.15mm
비늘의 매수	126매	112매
금무게(18K)	43.39kg	44.69kg

석벽에 새겨진 문양 STONE WALL CARVED SEALS

성 안의 석벽에 다양한 모양의 기호를 새긴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성 과정에서 석벽을 세우도록 명령받은 여러 다이묘들이 다른 다이묘의 돌과 구별하기 위해 새긴 "표시"입니다.

다양한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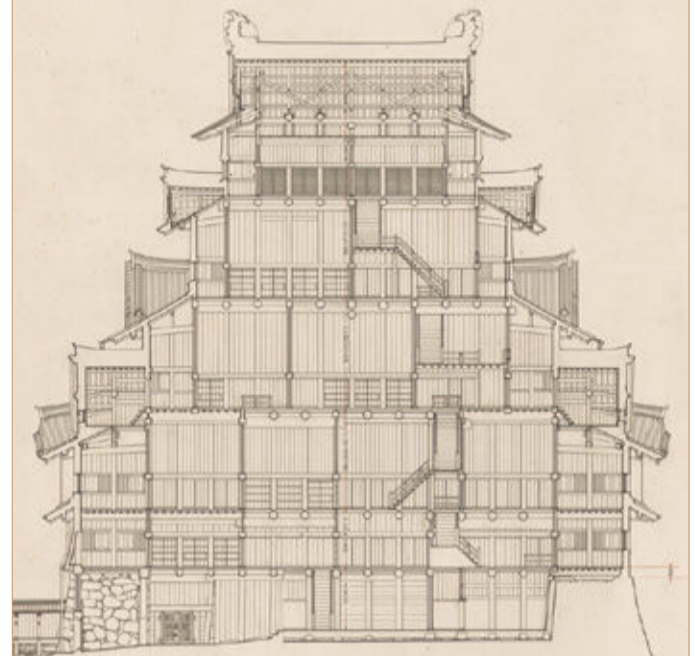


천수각의 목조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OODEN RESTORATION OF THE NAGOYA CASTLE TOWERS

현재의 천수각은 종전 이후 나고야의 상징으로서 재건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조물이지만, 재건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여 설비 노후화 및 내진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특별 사적 나고야성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긴조은코로쿠(金城温古録)' 및 '쇼와지쓰쿠주(실측도)', '카라수간판샤신(사신)' 등 현대에 남겨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천수의 목조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각 목조 복원
복원 사업 개요



나고야성 내부의 볼거리 HIGHLIGHT

나고야성 혼마루고텐(궁전)



혼마루궁전은 초대 오와리 번주의 주거 공간 및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1615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쇼군 전용 숙소가 되었습니다. 총면적은 약 3,100㎡으로, 30개가 넘는 방이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1930년에는 천수와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명건축물로 알려졌으나, 1945년의 공습으로 소실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6월 8일에 전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조라쿠텐



조라쿠텐은 1634년에 3대 쇼군 이에미쓰의 상경에 맞추어 증축된 오나리고텐(쇼군을 접대하는 건물)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고쇼인 또는 오시로쇼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혼마루궁전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건물이며, 천장에는 이타에(넝쿨지 그림), 방과 방 사이에는 극채색의 조각 만마(통풍창)가 있습니다.

혼마루궁전 음성안내기(요금) 100엔

니시노마루 곱집 성보관(박물관)



옛날에 쌀 창고가 늘어서 있었던 니시노마루에 2021년 11월 '니시노마루 오쿠라 조호칸'이 개관했습니다. 중요문화재 '나고야성 혼마루궁전 장벽화'를 비롯한 나고야성의 문화재를 다양한 테마에 맞추어 공개합니다.

중요문화재



도난스미야구라(망루)

혼마루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지붕이 2중이며 내부가 3층인 망루. 밖으로 나온 창에는 '이시오토시(돌등을 떨어뜨리는 곳)'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구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내부 비공개)



세이난스미야구라(망루)

규모 및 구조는 도난스미야구라와 같지만, '이시오토시'가 서쪽과 남쪽 두 방향에 있어, 박공의 형상도 다릅니다. 1921년에 일어난 재해로 붕괴되었으나, 1923년 나고야 이궁 시대에 궁내성에 의해 수복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니가와라(鬼瓦) 등에 국화꽃 문양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 비공개)



세이호쿠스미야구라(망루)

지붕이 3중이며 내부가 3층 구조인 망루. 다른 건물의 오래된 재료를 전용해서 건축되었으며, 외부 북면과 서면에 삼각형 박공을 만들고 '이시오토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비공개)



혼마루 오모테니노몬

혼마루 남쪽에 있으며 철문이 붙여져 있고, 사용한 재목은 마름질을 두껍게 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 좌우는 여장이며, 사격용 구멍이 있습니다.



구 니노마루 히가시니노몬

고려문 형식으로서 니노마루 히가시 테쓰문 마스가타(용성)에 있었던 문입니다. 1972년에 혼마루 히가시니노몬 터에 이설 복원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나고야성 노 카야(비자나무)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며, 나고야에서 유일한 국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카야 열매'는 에도 시대 중기까지 번주의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나고야 공습 시 소실은 면했지만, 기동 북쪽 면에는 크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명승 나고야성 니노마루 테이엔(정원)

초대 번주 요시나오가 니노마루궁전을 지으면서 궁전의 북쪽에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10대 번주 나리토모가 대규모 개수를 하면서 회유식



정원으로 바뀐 뒤 용성기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북서부의 일부만 남기고 그 모습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근세 정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유형문화재 노기소크(창고)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에 육군의 탄약고로 지어진 벽돌 창고입니다. 나고야군에



부임했던 노기 마레스케 대장을 기념하여 훗날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나고야 공습 전, 이 창고에 혼마루어전 장벽화를 대피시켜 소실을 막았습니다. (내부 비공개)